

폭염에...

에어컨 동났다

매출 418% 증가...설치까지 10일 웃돈 요구도

기록적인 폭염 탓에 에어컨이 동났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휴가를 미룬 채 생산라인을 쫓아돌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대우일렉 광주공장도 이미 자재가 바닥나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유통업체는 쏟아지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주문을 거절할 형편이다. 물량이 크게 부족하다보니 가격은 한 달 전보다 무려 46% 뛰었고, 설치까지 10일 이상 걸리다보니 ‘웃돈’ 거래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극약처방으로 엔지니어 200여명을 에어컨 설치 지원에 투입했다. 5일 광주지역 가전업체와 유통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폭염주의보를 시작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에어컨이 날개 돌린 듯 팔리고 있다. 이마트 광주점은 최근 2주동안 에어컨 매

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늘었다. 하루 평균 상담 30여건, 판매 20대에 달하고 있다. 진열상품까지 싹쓸이 판매되고 있다. 삼성 에어컨은 호남권에서 하루 2000여대가 팔려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2일 이후 판매량이 전주보다 무려 418% 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에어컨 생산라인의 여름휴가를 뒤로 미룬 채 지난달 23일부터 25일부터 에어컨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이정범 대우일렉 호남지사는 “에어컨과 같은 계절상품은 연초에 생산계획을 세워 자재 등을 구매한다”면서 “올해 에어컨 주문이 폭주하면서 확보한 자재가 바닥나 생산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에어컨 주문이 폭주하면서 광주지역 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는 에어컨 품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공급 물량이 크게 부족하자 에어컨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7월 초 150만원 하던 에어컨 가격이 이달 초 2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문이 폭주하자 설치에도 10여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설치기사들은 웃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사는 장경기(44)씨는 늦은 시간까지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다가 폭발전문점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계속 전화를 걸어 간신히 주문을 했지만 1시간 뒤에 배달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 치킨, 족발 등 야식·음식 배달업체를 비롯해 유통업체들이 야식 열풍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올림픽에...

야식 불났다

치킨·족발 등 주문 폭주...대형마트 연장근무

5일 음식배달업체 및 유통업체에 따르면 올림픽 주요 경기가 런던과 한국의 시차(8시간)로 밤 시간과 새벽에 집중돼 늦은 시간까지 배달 주문이 이어지면서 매출이 늘고 있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즉석조리식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 치킨전문점들은 올림픽 시즌에 맞춰 심야 연장영업하고 있다. 평소 밤 12시~새벽 1시였던 폐점시간을 한 시간 연장해 새벽 2시에 문을 닫고 있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치킨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월드컵 기간에도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월드컵 때만큼은 아니지만 주문 전화가 평소보다 5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야식거리를 준비하는 고객들도 늘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올림픽 개막 이후 즉석조리식품 매출이 전주보다 15% 늘었으며 맥주도 28% 증가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도 지난달 즉석조리식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으며 라면도 3% 가량 늘었다. 편의점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A편의점(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경우 밤 10시 이후 시간대 매출이 일주일 사이 20% 가량 늘었다.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맥주와 안주류, 아이스크림, 아이스 크림, 음료수 등을 찾는 손님들이 대부분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세븐일레븐도 지난달 말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박가 인근 매장의 매출이 일주일 사이 12.2% 증가했다. 맥주(36%)와 안주류(30%)가 가장 많이 팔렸으며 라면도 매출이 25.6% 늘었다. /이은미기자 emlee@

커피 용량 “그때 그때 달라요”

소비자원 조사...스타벅스, 표시 용량보다 적어

유명 브랜드 커피전문점 테이크아웃 커피의 카페인 함유량과 용량이 매장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타벅스 등 일부 브랜드 커피는 실제 용량이 표시된 용량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유명 브랜드 커피전문점 9곳에서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커피의 실제 용량과 열량, 카페인 함량 등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고서를 발표했다.

스타벅스커피, 커피빈, 파스쿠찌, 엔제리너스커피, 이디야커피, 카페베네,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등 9개 브랜드 커피(아메리카노, 카라멜마끼아또)를 조사한 결과 카페인 함유량은 2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같은 가격에도 용량이 1/3가량 차이가 났다. 카페인 함유량은 이디야 커피(91mg)와 탐앤탐스 커피(7)가 가장 낮았으며, 파스쿠찌는 196mg로 이들 브랜드보다 카페인이 2배 이상 많았다. 커피빈(168mg), 카페베네(168mg),

투썸플레이스(159mg), 할리스 (152mg), 스타벅스(114mg) 등이 카페인 함유량이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카페인은 각성효과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잉섭취할 경우 신경과민, 불면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약청은 성인의 카페인 일일 섭취 기준을 400mg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브랜드명	기본 사이즈	가격 (원)	카페인 (mg/1잔)	평균 용량
카페베네	Regular	3800~4500	168	299g
파스쿠찌	Regular	3800	196	293g
할리스	Regular	3600	152	310g
이디야	Onesize	2500	91	279g
스타벅스	Tall	3900	114	309g
엔제리너스	Small	3600	95	283g
탐앤탐스	Tall	3600	91	267g
커피빈	Small	4300	168	300g
투썸플레이스	Regular	3800	159	311g

※ 아메리카노의 열량은 10cal 내외(올레이지 및 매장표시치) (자료: 한국 소비자원)

같은 브랜드의 음료임에도 용량이 균일하게 제공되지 않는 등 용량도 제멋대로였다. 최대·최소 용량간 편차가 최대 100g이상 차이가 났으며 실제 용량이 표시된 용량보다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카라멜마끼아또의 경우 최대·최소 용량간 편차는 할리스커피(131g), 투썸플레이스(113g), 스타벅스커피(107g)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자사 브랜드의 평균 용량의 32~40%에 해당하는 양이다. 스타벅스는 매장과 홈페이지에서 아메리카노 톨(Tall)의 부피를 355ml (355g)라고 밝혔지만 실제 판매된 제품 평균 용량은 309g으로 46g이 부족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스쓸한 창업

7월 7089개... 사상최대

7월에 새로 생긴 법인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5일 금융결제원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신설법인인 7089개로 나타났다. 2000년 1월 신설법인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특히 지난 6월 6744개로 사상 최고치를 보인 데 이어 한 달 만에 신기록을 경신했다. 새로 생긴 법인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취업난에 창업으로 눈을 돌린 젊은 세대가 늘면서 생계형 소규모 법인이 급증했기 때문에 준비부족과 과다경쟁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급증하는 신규법인 대부분은 자본금이 1억원도 안 되는 영세한 규모다. 이 때문에 하반기 경기 침체에 따라 소규모 법인이 자영업자와 함께 앞으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광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1800~1920 박스권... 조선·금융업종 유망

국내 증시가 변동성에 익숙해지고 있다. 기대했던 미국의 FOMC 회의나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렇다 할 재료가 부족되지 못했고, 국내 기업들의 2/4분기 실적시즌 기간 중 향후 실적 전망치에 대해 하향 조정 추세가 이어지는 등 상황변화를 이끌 만한 변수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 열린 ECB 회의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 노력을 하고 있다. 재정 위기국의 국제 매입방안이 대표적이다. 유럽 국제시장의 불안과 조달금리로는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정책 당국자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ECB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조달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 국제 매입을 재개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록 이번엔 시장이 원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얻지는 못했지만 유럽이 지난 5~6월처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증시의 약세와 ECB 회의 이후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도 외국인의 동요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7월 27일

이후 이어진 외국인의 5일 연속 순매수 규모(1조 8440억원)에 비해 지난 주말 상대적인 매도압력이 그리 크지 않았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에서는 오히려 1000억원 이상의 매수세를 유지했다. 드라기 총재가 직접적인 시장조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 긍정적인 평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독일의 반대로 강력한 대안 마련에는 실패했지만,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 내부적으로는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펀더멘털에 근거한 주도주의 부각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럽시장과 글로벌 경기 불안심리로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치의 하향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등 코스피 전반의 반등에도 지속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이익에 대한 불안심리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어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실적 급감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가격 메리트에 근거한 업종 및 종목별 트레이딩 대상 찾기 노력

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극심한 저평가 국면에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반기 펀더멘털 모멘텀이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일단 가격 메리트와 수급 모멘텀(외국인·기관 매매패턴)에 근거한 청장급수, 조선, 은행,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종목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코스피 1900선을 전후해서는 현금 비중 확대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 형성됐던 평균적 박스권을 감안하면 이 지수대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1차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 1800~1920 선은 2012년 4분기와 급락 5월~7월 중순까지 횡보세를 연출했던 구간이고 당분간은 이 정도의 박스권 설정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양궁 미녀공사 기보배 한국 첫 2관왕 “명중” 금빛 신화가 되다!



기보배 선수 2012런던하계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온 국민과 함께 이연안과병원(보라안과)과 북교당 한약방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연안과병원 | 보라안과 | 2013년 1월, 이연안과병원이 보라안과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북교당 한약방